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
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
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지
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
십시오.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
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
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
드립니다. (글책임: 편집자)

●보낼곳: 우 110-170
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-33
현대불교신문사
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
●FAX: (02)737-0697/8
●PC통신: 인터넷부디피아
http://www.buddhapia.com/mem/ha
nmaum

법공양 페이지

잘살고 못사는 것도 다 자기가 만든 일

15면에서 계속

온저지 약이 없다면 선이라는 이름이 나
왔겠습니까. 약이 있으니 선이라는 이름
을 빛나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? 선이
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약도 같이 돌 아
니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죠. 모두 서로가
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
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 오늘 되
는 것도 질문하시고 아니되는 것도 질문
하세요. 한 전진들이니까요.

를 들어서 전진들이라고 합시다.
여러분이 오신 것이 좋이라면,
여기 본래 있는 줄하고 맞붙어
서 붙어 들어왔을 뿐이지 내가 해 준
것도 없고 여러분이 한 것도 없이 붙어 들
어 올 뿐입니다. 그래서 말로 이름을 짓되
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습니
라. 그 반면에 내 마음 내 마음이 붙어
아닌 까닭에 붙어 들어왔을 뿐입니다. 이런
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한
생각을 잘 해서 나쁜 이미지를 한 번 굴
러서 바꾼다면 한몸이 새롭 되는 것과
같은 겁니다.

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사니까 "내가

**"처음 배울 때는
일일이 따져
생각 마시고
모든것을 무조건
주인공에 놓고
입력하세요"**

뭐 이라고 저라고" 하는데 '내가' 라는
건 없습니다. 그래서 공생입니다. 공생
(共生)! 여러분 공생 아닙니까? 공한 공
생의 개체, 그리고 공심의 개체 말입니
다. 개체는 하나인데 공생·공심·공용·
공체·공식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
래서 공양이라고 하고 공덕이라고 하고.
공양은 우리가 한마음인 부처님에게서
공양을 받으신다 이런 겁니다. 한마음으
로서 붙어 아끼게 반아줄을 쥘다면 그
바로 공덕이 되니까. 인에도 더불어 같
이 한가슴이요, 밖에도 더불어 같이 한마
음이니 자리마디도 한자리이다 이겁니다.
부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해 놓으신 게
아닙니다. 한 지구 아래 서로 하나가 빠
라도 아니되리만큼 전부 서로 도와서 살
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 하는 사람이 있
으면 저저 하는 사람이 있고, 저저 하는
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는 사람이 있고,
지계군이 있으면 또 짐을 지게 하는 사
람이 있고 말입니다. 요즘은 이사해주는
차가 생겼는데 이사 할 사람이 있으니
까 이사차가 생긴 거죠. 이사차가 있으니
까 이사할 사람이 생기고요. 일체만물이,
아니 미생물에서부터 다 서로 도울 수
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.

난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. 산에서
말입니다. 너무 숨기 때문에 가랑잎을 움
퐁이네다 넣고는 그 속에 앉아서 생각을
했어. '야! 참 회한하구나! 우리같이
못나고 못생긴 사람은 다 없애고 좀 잘
생기고 잘살고 복받은 사람이 태어나
서 잘 살게 하고, 보기만 해도 흥취한 별
래들, 뽕들, 짐승들은 왜 보게끔 이렇게
나와서 세상천지에 돌고 있나' 하고 말
입니다.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추운줄도
모르겠고 밤을 꼬박 새고서 나오니깐 아
침에 웃음이 나오. 내가 도대체 뭐하는
사람이며 남들이 미쳤다고 하겠지 하는
생각이 나서 말입니다. 그랬는데 그게 아
니였어요. 미친 사람도 아니고 성한 사람
도 아니고 허허허... 자기가 자기를 알기
위해 그렇게 수난을 겪지 않으면 길을
모르죠. 그 수난을 겪은 게 양식이 되고,
재산이 되고, 공덕이 되고 그런 거죠.
이런 얘기 그전에 내가 한번 했죠. 지
금 광명사 마당이 그전에 밭이었거든요.
그 땅 사기전에 밭을 일구던 사람이 있었
는데, 그 밭에다가 깨를 그냥 담백 심었
는데 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. 깨를 심어
놔는데 그냥 진땀물이 온통 생겨서 깨농
사를 밭치게 생겼어요. 농사 지은 게 다
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벼도 시원치 않고

이러니 일곱식구가 다 굶어 죽었다고 노
인네가 그래요. 그래서 관하는 걸 가르쳐
줬어요. '이 게 자리의 진땀물도 전부 주
인공 너만이 없애게 할 수 있어' 하라고
가르쳐 줬더니 맨날 그걸 믿어요. 맨만한
사람 같으면 믿지 않습니다. 그거, 그런
걸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엄청난 문제들
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
까. 그런데 참 순박하기가 한참이지, 그걸 믿
구선 그렇게 했더라 말입니다. 사흘째 되
는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밭간 점이 있고
종뿔이 같이 생긴 게 그냥 함박 같아서
진땀물을 다 빨아 먹더니 그냥 훌쩍 날아
가버립니다. 그리고 나서 껌조 자리가 되
살아나게 되니까 '야! 이거 참 회한하구
나!' 그래 가지구선 다른 것도 그렇게 했
대요. 그랬더니 그해에 농사가 잘 돼서
참 오막살이라도 우리가 조금 보태준 거
하고 견해 집을 사가지고 나왔죠.

그러한 문제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분
생활 속에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
습니다. 내가 항상 얘기해 드려요. 이 몸
속에 의식들이 지금 말로 따진다면 입자
라고 본다. 입자가 나가서 어떠한 고통을
받는다고도 다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
조절하고,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다. 마
음을 그렇게 내면 그렇게 따라주고, 마음
을 그렇게 안 내면 안 따라주고, 즉 마음
을 내는 대로 따라준다고요. 그러니 얼마
나 묘한 법이겠습니까. 우리가 지금 내
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, 내 마음을
내 마음대로 해서 내 식구를 이끌어가고
내 조상을 이끌어가고 내 자식을 이끌어
가고, 세세생생에 돌애다 세워놔도 살 수
있게끔 이끌어 가는 방법은 바로 이 방
법 밖에 없습니다.

그리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
으니 앞서서 수 억겁을 거쳐나오면서
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게 현실에 또 잘
생각을 해서 주인공에 다 맡기니까 그
게 새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. 입력이
된다면 바로 팔자운명이 뭐니 하는 것
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는 거죠. 새로 입
력 들어간 것만이 현실에 나오게 돼 있
으니까요. 그러기 때문에 형편이 좀 썩어
가고 그렇게 싸우면 것이 싸워지고 없고,
마음이 너그러워지고, 처음에는 그걸로
자꾸 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자기 스
스로 알게 되는 거죠.

그러니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. 예를
들어서 이 도리를 알고 있어야만 급할때
쓸 수 있겠죠. 들어보지도 못하고 막어보
지도 못했으면 급할때 어떻게 처리를 하
겠습니까? 그러나 경소에 잘 안하고 그



그림 · 최주현

지간에도 그렇고 보기 싫어하지 않을
겁니다. 끼리끼리 만난 인연들이거든요. 우
연이라는 건 없어요. 여러분도 살아보시지
만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들과
모여서 하고,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
사람들과 모여서 정치를 하고, 상인들은
상인들대로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죠.
런데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?
그 한 가족이 도이는 것도 사과는
사과대로 모이고, 금은 금대로
모이고 은은 은대로 모여서 살고, 구리는
구리대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. 남자는
남자로 모이고, 그러서 세계가 지역이
다 다르다 할지라도 끼리끼리이기 때문
에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게 돼 있습
니다. 기계에다가 놓은 큰 것 작은 것 고
고, 썩은 것 상한 것 고르고, 이것 따로
저것 따로 전부 따로따로 끼리끼리 놓고
팔고 사고 그러죠. 그러듯이 사람도 차원
에 따라서 모임을 가지고 사모이게 하면
그 차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끌려가서
미국에 태어나는 사람있듯이 한국에 태
어나는 사람있고 말입니다. 또 풍족하게
사는 나라, 굶어 죽는 나라 이런 것도 영

든요. 이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하고, 저
렇게 한다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
우리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방편
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. 하늘이 무너진
데 먹고 다 쓰자 이라는 사람앞에는
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다 써버리지만 허
허허... 소꿉장난을 하다가 날이 저물면
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늘
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좋은
일 하고 살면 그 값어치가 더 들어오면
서 사람 살아가기 유하고 또 하늘이 무너
지지도 않겠지요.
기독교에서도 불바다가 된다 뭐 다 죽
는다 하는데 제가 스물 셋살부터 그러던
건데 여지껏 그래요. 왜 그러냐? 그것이
모든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해서 하늘이 무너지고
땅이 꺼지고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죽는
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들이 그렇다는 얘
기입니다. 마음들이 그래서 불바다가 된
다고 하는 거예요. 이 마음의 근본은 불
(佛)이거든요. 그래서 마음이 중심이 없
어지면 그것이 정말 불바다가 되는 거죠.
우리가 실사속고 한다면 어떤 거든지 내
가 아니되는 게 없습니다. 항상 말하지만

안달복달 하지말고 좀 너그럽게 사세요 마음중심 잃는게 바로 '불바다 종말' 의미

러다가도 급하면 하게 됩니다. 생각나게
되거든요. 사람이 내 모습없는 나의 마음
에 죽 체없는 '나'가 정 급하면 그 속으
로 투입이 됩니다. 내가 그랬죠? 다른 혹
선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가
될 때에는 언제라도 그것이 내게 될 수
있다고 말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
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거기가 집
어넣어야만 고쳐지는데 본인이나 정신이
없어서 못할 때에는 주변에서라도 자꾸
집어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. 그래야 앞
서 혼란되게 입력된 자체가 없어지고 새
입력이 들어감으로써 새 물로 바뀌죠. 마
음으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된다
는 말이지요. 아무리 복을 두들기고 목탁을
치고 굿을 해도 그런 아마도 점점 그 쪽
에선 콧방귀 끼고 그 쪽에선 더 할겁니
다. 그러니 이 공부야 얼마나 좋아요. 아
무리 약한 귀신이다 할지라도 그 착한
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일까 껴안고 '야!
나는 본래부터 나쁜 게 아니라, 몰라서
그런 거 아니야.' 하고서 아주 아름다운
마음으로써 싸안아 준다면, 그 마음이 일
순간에 녹아져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
마음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사실
을 알게 되고 하나가 되죠. 진짜 자비는
그런데 있다고 봅니다.
여러분이 말로만 사람 사랑하지 진짜
사람을 한다면, 부부기간에도 그렇고 자식

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철두
철미하게 질서정연한 것입니다. 우리 사
는 것이 왜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
는 사람은 못 살게 돼야 하나 하고 여쭙
구니 없이 환탄을 하고 그러자마는 그
가 자기 마음대로 놓은 일입니다. 누구한
테 항의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기
때문에 그 도리를 안다면 남을 미워할
수가 없고 죄를 더 지을 필요도 없고 마
음을 초조하게 가져서 내 몸에 병들게
하지도 않고, 망했다고 돈 버리고 사람
을 버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. 버렸으면
버렸나보다. 내가 버리게 했으니 내가
가 또 일러주세요. 이렇게 태연하게
마음먹고 늠름하게 나간다면 아마 주변
어디서든지 자기 주인공이 끌어올려서
귀한 사람을 만나게해서 서로가 살게끔
집안 식구들도 못 살게 하고 오며가며
그냥 화가 나서 화풀이를 여기저기다 하
니까 식구들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나
요. 그러나 복도 들어올려야 들어올 수가 없
지요. 그 복도 들어올 수가 없나? 오늘
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허허! 하고
웃을 수 있어야 돼요.
그게 무엇 그렇게 겁나는 일입니까?
그러한 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
서는, 오늘 죽어도 겁 안나는 사람한테는
그렇게 죽게 하지도 않아요. 청개구리

지구나 인간이나 모두 수명이 있지만 사
는데까지는 그냥 여유하게 살 겁니다. 그
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? 살다가 간
다는 표시를 몇 년씩 앉으면서 옆에 사
람 고생시키고 소문을 '내고 웃을 벗는
게 아니라, 웃을 벗전에 자리를 마련 해
놓고 새 옷을 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
죠. 이렇게 좋은 법을 어찌 우리가 그냥
널길 수가 있었습니까? 세상에 이쁜 것
처럼 슬픈 게 되죠.
여러분도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
만 죽지 않아도 항상 고통을 받고 지경
게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. 그러하
고 살면 될 건데? 이라고 살면 될까하
고 싶어서 예전부터 겪었던 그 슬픈 고
난들, 중국에서 인도로 가면 죽어 넘어
지고,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면서 공부하
는 스님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길을 가
다가 쓰러졌는지 나는 그걸 알 수 있었
어요.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루를
만들어 뿌려서 그 분을 다 위로할 수 있
다면,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. 내가 죽어
서 그렇게 할 수만... 고생하고 못나고
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 수만 있
다면 '내가 죽어서 가루가 되리라' 이렇
게도 생각했어. 그런데 정말 죽어서 가

근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서, 한마음으로
서 묶여져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자비
로서 마음의 향기를 뽕고 서로 응하고
들어가는 거죠. 나 혼자만 내내 또듯한
방에서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속임수나
쓴다면, 그것은 이 온누리가 다 그냥 짓
이겨져서 가루를 만든다고 해도 그런 어
쩔 수 없는 거란 말이예요. 나는 이런 생
각을 그전에 했어요. 추운데 있으면서 뭐
를 생각했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
크고 작은 것도 없고, 약하고 강한 것도
없고 그렇게 되다보니 너무 많이 울었어
요. 울다가 보니까 스님네들이 공부하
기 위해서 예전부터 겪었던 그 슬픈 고
난들, 중국에서 인도로 가면 죽어 넘어
지고,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면서 공부하
는 스님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길을 가
다가 쓰러졌는지 나는 그걸 알 수 있었
어요.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루를
만들어 뿌려서 그 분을 다 위로할 수 있
다면,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. 내가 죽어
서 그렇게 할 수만... 고생하고 못나고
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 수만 있
다면 '내가 죽어서 가루가 되리라' 이렇
게도 생각했어. 그런데 정말 죽어서 가

협천 주인공

루가 됐어요. 일체제들의 마음은 내 한마
음이다 하듯이, 가루가 돼서 일체를 다
두루 뿌려서 해도 그 자리에 딱 하나는
되잖습니까 그 뜻을 알겠어요? 그러니 스
스로 알게 공부 열심히 해요.
하얀 사람마디요, 물론 먹고 살기 위
해서는 그렇겠지만 너무 극치적으로 안
달복달을 하고 살지 마세요 모두, 좀 너
그러우세요. 인생은 한 철이예요. 한 철,
우리는 인생 한철을 아주 급급하게 살죠.
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살고, 또
망망대해에 배 띄워놓은 것과 같이 사는
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망망대해에 가다
가 빠져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
져서 없어지든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이
몽땅,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
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
그냥 다 맡기고 편리하게 놓으세요. 그
냥, 그저 라면 한 그릇을 먹으니 딱 한그
릇을 먹으니 하루살기는 마찬가지로예요.
내가 항상 그래요. 밥을 한그릇 떠주나
또 누룽지를 반그릇 갖다주나 먹기는 마
찬가지예요. 뭐 그거 별 대저 없어요.
그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거 해먹자. 더
잘 맛있는 거 해먹자 이러한 마음이 그
게 파단을 일으켜요. 그냥 생기면 생김데
로 우리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온대로 그
냥 먹는 거예요. 또 가면 가는 거 잡지도
말고 오는 것도 막지도 말고, 생김대로
물 흐르는 대로 사는 거죠.
물이 뭐라고 그런 겁 아세요? 만물만
생이 다 물속에서 살아도 다 집이 돼주
고 끝없이 흘러가면서 유유히 흘러가
는 날 보고 살아가, 나 같이만 살면 빛이

**"한철 사는 인생
물같이 유유히
산같이 묵묵히
살아가면
걱정할 일 없어"**

걱정이냐 이래요. 산은 산대로 산 같이
나같이만 살라고 그래요. 묵묵히. 그러다
면 뭐 걱정이예요.

천불가 부르면 눈물이 나오
문 제가 선원에 언지가 한 9개월정
도 되는데요. 언제부터지는 기억이
잘 나지 않는데 여기 와서 삼귀의 청
법가·산학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
제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굉장히 많
거든요. 옆에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은
엄숙한 자세로 노래 부르고는, 저만 민망
하게 또 흐느끼고 울 수도 없고 참 민망하
입니다. 눈물흘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
고 싶습니다.

문 전자에 누가나 다 사람같이 살
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노력
을 했겠죠.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나오기
이전에 말입니다. 그것을 정진계라고 하
죠. 그래서 노래를 하다가 그 이치를 들
으니가 예전에 내가 그렇게 공부하던 그
생각이 나고, 그래서 처사님 자체는 몰라
도 자기 주인공만은 알기 때문에 눈물이
나죠. 눈물이 나면서도 속으로는 흥겨워
서 흐느끼게 되죠.

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태에서 지금 찾
고 있는 그 정진인이지, 자기가 어떻게
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주어진
거니까 그 주어진데다가 도원력을 하면
입력된 자체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도
그런 걸 들으니가 너무나 감격하고 무량
해서 웃는 거죠. 그러니까 공부 잘 할 수
있는 겁니다. 그거 마음이 편안하더라
우세요. 우는 건 태에서 우는 게 아니라
난단 빌려주고 마음만 빌려줬을 뿐이니
까요.
그리고 한마디 할 게 있어요. 외국에
가봐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막히면
경전을 찾던군요. 나는 그런 걸 많이 봤
습니다. 부처님이나 수많은 선지식들이
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불법을 말씀해
주셨고, 경전이라는 것을 내서 우리들이
그래도 겁대기나마 보고 마음을 공부할
려고 노력하니까 얘기인데, 지금 우리는
한 지구안에서 살면서 네 종교 네 종교
따지고는 있지만, 한 지구안에서 우리가
함께 산다 하더라도 차원이라는 것은 있
습니다. 각각의 차원은 각자 자신이 만드
는 겁니다. 어떤 차원으로 어떤 모습으로
살아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마
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세요.

행도 윤회의 원인이 되는 이유
문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
하는 것은 작은 선이라고, 착함이